**꾸빼 씨의 행복 여행**

**[수요일팀]독수리 – 조0연**

1. **저자소개**
   * **프랑수아 를로르**

1953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1985년 의학박사학위와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를로르는 아동 자폐증 전문가를 아버지로 둔 탓에 정신과 의사란 직업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직업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환자들을 검진하기보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깊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아버지 뒤를 이어 정신과를 택하게 되었다.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1년 간 미국 정신의학계에 몸담게 되며, 프랑스로 귀국해서 1986년~88년, 파리 르네 데카르트 대학 병원인 네케르 병원의 정신과 과장을 지낸다. 건축과 회화, 문학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가진 그는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글쓰기를 시작하고, 빼어난 글 솜씨 덕택에 펴낸 저서 가운데 여러 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1. **작품의 시대적 배경**

경제적으로 어려워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던 과거에서 정신적인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하고있다.

1. **줄거리**

꾸뻬 씨는 프랑스 파리 시내에 살고 있는 중년의 정신과 의사이다. 그는 자신의 클리닉을 가지고 있고 따르는 환자들이 있고 자신과 사랑을 나누는 애인도 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아니 객관적으로 성공한 계층에 든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꾸뻬는 어느 날 자신의 삶 전반에 회의를 느낀다. 그는 정말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에 맞닥뜨린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운을 벗어 던지고 잠시 진료실 문을 닫아 둔 채 여행을 떠난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진 것이다. 세계의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이다.

1. **감상평**

이미 행복할만한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 당연했기에 특별히 깨닫지 못하고 있던 요소들을 여행하며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 깨닫게 해 주었다. 꾸뻬씨가 하는 여행을 통한 여행의 의미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어 나의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보게하여 다시 익숙해진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활력을 주는 전환점이다. 남의 불행을 보며 나의 행복에 안도하여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그들을 보며 새로운 시각이 트이는 것은 긍정적인 일일 것이다. 책을 읽으며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 졌다. 이전에는 여행을 하며 새로운 문화, 자연 등을 보고싶었다면 책을 읽고난 후인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싶어졌다.